

담양군, '투기 목적' 농지취득 막는다

자격증명 발급 심사·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실수요자 이용 활성화해 농지 기능 정상화"

담양군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담양군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이용실태조사 강화 △농지불법전용 특별 단속기간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매수자가 직접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해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면담을 강화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을 시 증명발급을 제한하는 등 투기적 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차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는 관외거주자의 소유 농지를 전수

조사해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지처분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 또는 불법임대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341필지 238명에게 농지처분의무부과 전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분을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 이후 처분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아울러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무단용도변경, 농지성도 후 불법이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미이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질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이용을 활성화해 농지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충곤 화순군수, 여성 경제인과 간담회

여성 기업 발전 모색

구충곤 화순군수가 지역 여성 경제인과 만나 여성 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5월 26일 구 군수는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회장 김영) 임원, 회원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여성 기업 활성화, 판로개척, 여성 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성 기업인 9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활동을 펼치며 느낀 애로 사항부터 여성 기업 육성과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 군수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여성 기업과 우리 군이 잘 협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함께 힘쓰자"며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기업인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 마산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광평마을 주민 42명 자발적 정비 통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구례군 마산면 광평마을 주민들이 전라남도 역점시책 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청정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5월 26일부터, 마산면 광평마을 주민 42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반의 자발적 참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오랜 담장을 청소하고 1차 도색을 완료하였다. 마을 추진반 주민들은 본 사업 계획부터 진행 등 모든 사업 단계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모았다. 광평마을 주민들은 낡고 방치된 오랜 담장과 담장들을 정비하여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황철배 마산면장은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일정을 조율해 직접 담장 청소 및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며 "주민이 스스로 만든 마산면이 주민들의 주인 의식과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 빛가람동, 청소년 대상 볼링 레슨 지원 사업

여건 어려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15명 선정



나주시 빛가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나경아, 이하 지사협)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특화사업을 펼친다. 빛가람동은 평소 여가 활동 기회가 적은 청소년에게 '미래로 스트라이크! 빛가람 주니어 볼링 꿈들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구 여건이 어려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만10~15세) 15명을 선정해 주1회 볼링 수업을 지원한다. 빛가람동 지사협 위원이자 관내 볼링장 '볼링300'의 대표인 최승규

씨가 장소, 강사, 차량 등을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최승규 대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다양한 세대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된 마음"이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함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지원 소감을 전했다. 나경아 지사협 위원장 "나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기회를 제공해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 발굴과 민관 협력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장성에서 결혼하면 축하금 '400만원'

군, 지원제도 개정 통해 기존 300만원에서 증액

장성군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축하금 지원제도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300만원을 3회에 걸쳐 100만원씩 지급했으나, 7월 이후 결혼축하금을 신청하면 총 400만원을 1회 200만원, 2~3회차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장성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 시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뒤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결혼축하금 증액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저출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밖에도 올해부터 전입 장려금을 개선, 전입 즉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전입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오는 15일까지 추가(2차) 접수

곡성군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2차) 모집한다. 행복바우처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20만원(자부담 2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곡성군에서 2017년부터 시행해 왔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다. 단 사업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받고 있는 자, 사업 시행 전년도 농업외의 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대상자는 본인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농정과 미래농업팀(0610360-83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